

‘밭그-·붓그-’에 관한 고찰

송상조*

目 次

- I. 머리말
- II. 본론
- III. 결론

I. 머 리 말

제주도방언(이하 방언)에는 문헌어나, 현대 표준어와 견주어서 통시·공시적인 면에서 살펴 볼 수 있는 것들이 더러 있다.

여기에서 살펴 보려는 ‘밭그-(ㅌ)·붓그-(부플다)’ 따위의 줄기(어간)에서 나타나는 ‘-ㅌ-’은 그리 많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 언어 생활에 흔히 쓰이는 기본어·기초 어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방언과 문헌어, 표준어와의 관계를 잇는 변화의 입장에서 살펴 볼 만한 것들이라 여겨진다.

이 말들이 쓰임은 일부는 향가, 계림유사, 조선관역어. 그리고 훈민정음 당시의 문헌에는 물론이고 현대 표준어에까지 이어지는 것들이다. 그런데, 방언에서의 ‘-ㅌ-’은 문헌어와 표준어에 대응을 시켰을 때, 여러 형태로 갈리어져서, 방언에서는 엄연한 두 소리마디(음절)이던 것이 문헌어에서는 한 소리마디로 줄어서 ‘밭·붓- 따위로 나타나고, 표준어에서는 받침으로 -ㄱ-, -ㅍ-, -ㅌ-, -ㅍ- 따위로 나타난다. 그리고, 문헌어에서도 대표형태(기본형태) 설정의 견해가 달라 방언을 통해서 이런 면도 살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부수적으로 바라진다.

* 강사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동시에 형태론과 음운론, 형태음소론의 입장을 아울러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그러나, 많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충분한 논의가 기대되지는 않지만, 기본 기초 어휘에 거의 맞먹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일부의 말들은 형태소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밑말(語源)을 밝힐 수 있었던 점도 있었다.

II. 본 론

방언에서 가리어 뽑은 20여 개의 말들은 줄기(어간)가 ‘-스-’로 된 것들인데, 단순한 방언형으로만 취급해 버리기에 너무 문헌어나 표준어와 가깝게 생각되었다.

문헌어에서는 음절이 두음절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한 음절로 줄어서 ‘-스-’가 받침으로 표준어에서는 다시 -스-가 바뀌어서 두 개의 음절을 이루기도 했고, 한음절로 줄어서 받침 -스-, -ㅌ- 따위로 바뀌어 나타나기도 했다. 차례를 따라 살펴 보고자 한다.

1. ‘-스-’ ⇄ ‘-스-’

방언에서는 ‘밧스-, -것스- 따위가 문헌에서는 ‘밧스-, 밧-, -것스- -것-, 표준어에서는 ‘밧’ 꺾- 따위의 받침으로 쓰이는 것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아래에 보기를 들면

1. 낫스다 [나스다]
피기 낫스레 가게(고기 낚으러 가자)
2. 밧스다 [무스다]
비 오키어. 보리 밧스라(비 오겠다. 보리 묶어라)
3. 솟스다 [스스다]
늑물/늑물(菜) 솟스라(배추 속아버려라)
4. 갓스다 [가스다]
낭 잘 갓스라(나무 잘 꺾아라)

5. 깃그다 [거끄다]
고사리 깃그레 가게(고사리 꺾으러 가자)
6. 닳그다 [다끄다]
마리 닳그라(마루 닦아라)
7. 붓그다 [보끄다]
콩 붓강 먹게(콩 볶아서 먹자)
8. 섯그다 [서끄다]
보리섯호곡 줍섯호곡 잘 섯그라(보리쌀하고 줍쌀을 잘 섞어라)
9. 엇그다 [여끄다]
집 가지 잘 엇그라(집의 가지 잘 엮어라)

(위에 올린 말들은 문헌에서도 모두 나타나는 말들인데 그 사용의 예는 줄이거나, 방언에서의 실제의 쓰임은 []속의 것이 바른 것으로 본다. 여기서의 표기 ‘깃그다’ 따위는 문헌어에 더 가까이 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이하에서도 마찬가지임)

위에 올린 9의 말들은 제주토박이의 언어생활에서는 씨끝(어미) 활용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서 ‘낫그고, 낫가서, 낫그니...’ 따위가 되어¹⁾ 두 음절을 이루게 된다.

대표형태를 살펴 보면 방언에서는 앞에 올린 {나끄- 무끄- 스끄- 가끄- 다끄- 보끄- 서끄-}가 되고, 표준어에서는 {남- 뉘- 슈- 깎- 닭- 볶-} 따위가 되는데 문헌어에서는 {낫-}으로 갈리어져 있다.

이러한 점은 방언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고찰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방언에 적용되는 규칙들이 타당성을 얻는다면, 문헌어나 표준어에 대비시키는 것도 무용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방언에서는 []속에 올린 것과 같이 풀이말(용언)의 출기(어간)가 두 음절로 되어 있는데 둘째 음절 첫소리가 ‘-ㄱ-’로 발음이 되고 있는 것은 음운적으로 문헌어의 ‘깃-’와는 약간의 규칙을 적용하면 대응의 관계를 밝히는 데는 그

1) 玄平孝: 「濟州島方言研究」(論攷篇), 大學社, 1985. pp. 279~292.

金洪植: <語幹末母音脫落에 대하여-특히 濟州島方言과 關聯해서->, 「제주대 학논문집 제8집」, 1977.

리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먼저 방언에서는 두 음절로 되어 있고, 문헌어나 표준어는 한 음절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방언의 둘째 음절 끝소리 ‘-’의 탈락으로 볼 수 있고, 갓그->가 묘->깍-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서 수의적 변동과 소리가어나기, 된소리 나기, 어간 끝소리 ‘-’의 탈락을 적용할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방언의 ‘가끄-’ 따위의 형태는 문헌어와 매우 비슷한 형태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방언과 표준어와의 형태적인 면에서의 공식적인 관점에서 어간 끝소리 ‘- --’가 그대로 방언에서는 있고 표준어에서는 떨어져 나가면서, 닿소리만 남게 되어 한 음절을 이루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대표형태의 설정 기준을 일반적이오, 합리적이오, 간편해야 한다²⁾는 주장을 적용하면 방언에서는 {나끄다 가끄다} 따위가 대표형태가 될 수 있겠다.

소리마디의 차이에 관한 이론은 Jespersen은 언어의 어휘는 처음에는 다음절(多音節)로 된 장형에서부터 차차 축소의 길을 걸어 왔으리라는 주장³⁾이 있고

오늘날 국어의 표준어에서 용언의 어간형이 단음절이며 폐음절로 끝나는 어사는 기원적으로 2음절이며 개음절이었으리라는 추정을 문헌적 사실이나 방언적 측면에서 볼 때 입증되다.⁴⁾

는 견해로 본다면, 여기에 올린 본도의 방언 형태는 문헌어나 표준어에 견주어 볼 수 있다. 그리고, 방언의 지명으로 쓰이는 ‘다끄네(修根洞)⁵⁾가 있는데 -根-의 표기된 것은 둘째 음절의 ‘-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대표형태 설정에 방증이 되리라 본다.

그런데 이 말들이 문헌어에서는 홀소리 씨끝과 이어질 때에는 ‘-스-’이 모두 쓰였으나 닿소리의 씨끝과 이어질 때에는 소위 고름소리라는 ‘-’를 취하지 않을 때에는 닿소리 과잉으로 뒤의 받침 ‘-ㄱ-’이 떨어진다. 그러나, 방언에서는 홀소리나 방언이 씨끝이 오더라도 이 -스-은 떨어지는 일이 없이 줄기의

2) 허용; 「국어음운학-우리말소리의 오늘·어제-」, p.256, 샘문화사, 1985.

3) Jespersen; Language, p.419-金洪植의 앞책에서 재인용.

4) 金洪植; 앞책 pp.29~46.

5) 계주시에 있는 지명으로 용담3동을 말함.

끝소리 ‘-’를 가지고 있어서 ‘나끄-, 가끄-’ 따위가 된다. 이 때에 문헌어와 현대 표준어의 변천을 다룬다면, 한편에서 기본형태로 보는 {갓-, 솟-, 것-} 따위로는 표준어로 와서는 ‘깁-, 슈-, 꺾-’이 되었다고 하기보다는 {갓-
-, 솟-
-, 것-}이 더 설명이 쉬워지고 합리적이라 본다. 그리고 문헌어에서도 {갓-}로만 두어서는 안되고 그 이전에 ‘*갓그-’(‘-’모음만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모음도 가능함)에서 ‘가끄-’, 다시 모음 탈락으로 한 음절이 되어서 ‘깁-’이 되고, 된소리되기가 이루어져 현대 표준어 ‘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의 파생에 대해서도 ‘밖(外), 못(東)’이 생겼고 3의 ‘솟그(間)’는 풀이씨로는 ‘슈-’이 되고 이름씨로는 ‘살(Y)’이 되는데 줄기의 끝소리 ‘ㄱ’이 떨어지므로 ‘솟-’이 되어 같은 뿌리(어근) ‘솟-’에서 파생되어 ‘스이(間)’와 ‘살(勝)’으로 뜻이 갈라져 나갔다고 볼 수 있겠다. 방언에서는 ‘스시(間)나 ‘솟-’이 그대로 쓰여 ‘손 지성기(살기저기)’, ‘살(술)타귀(사타구니)’, ‘스타귀’로 쓰여져서, 방언 ‘스끄-’와 관련이 깊게 여겨진다.

4의 ‘갓그-’와 ‘갓(皮)’을 그 형태와 의미를 관련시켜 볼 때 파생의 관계를 살필 수 있을 것 같다. ‘갓-’의 ‘-스-’이 ‘갓’의 ‘-스-’과 같은 잇소리(치음)이고, ‘-ㄱ-’이 ‘ㄱ>’이라는 견해로 본다면 ‘갓(皮)’이나 ‘갓(皮)’은 같은 뜻으로 쓰였는데, 이런 점에서 풀이씨 ‘갓-’와 이름씨 ‘갓(皮)’이 파생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ㄱ>’이 되면 ‘갓-’이나 ‘갓>-’가 되어, -ㄱ-, ->-이 떨어지면 ‘갓’이 되고 떨어지지 않으면 ‘갓, 갓’이 될 수 있다. ‘갓’의 경우는 살(Y)의 경우와도 일치하나 ‘갓’은 ‘갓>’일 때 -스-이 강화 되어 -스-이 되고서 ‘갓(皮)’이 되었다고 본다.

10. 겹그다[저끄다]

사람은 겹거 봐사 안다.
(사람은 겹어 봐야 안다.)

6) 朴恩用; <曲用時에 나타나는 [ㄱ][ㅎ]에 대하여 -계통론을 위한 접미사 비교> 『효대학보(?)』, pp. 44~63.

梁柱東; 『古歌研究』 p.777에서는 ‘>ㄱ’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한다.

인데 문헌어에는 ‘것ㄱ-’가 나타나나, 방언에서는 입천장소리되기(구개음화)가 일어나 ‘젓그-’로 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아울러 앞에 올렸던 말들과 같은 것이라 여겨지며 표준어는 [꺾-]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의 파생도 ‘꺾’의 뜻으로는 방언에서는 ‘즈짚/저짚’이 있는데, 문헌어 ‘것ㄱ-’에서 입천장소리가 되었고, 또 훌훌소리가 일어났고, 형태적으로 지 ‘젓ㄱ+흔’의 접사가 붙어 두 음절의 이름씨가 파생되었다고 보며, 역시 ‘것ㄱ-’에서 ‘-ㄱ-’이 ㄱ>ㅎ의 과정을 적용했을 때 드러난다고 본다.

2. -스ㄱ- ∞ ㅍ/ㅂ

방언에서는 -스ㄱ-이 문헌어나 현대 표준어에서 의미의 대응은 물론, ‘-ㅍ- / -ㅂ-’으로 형태의 대응이 되는 것들이 있다.

1-① 붓그다 [부끄다]

떡 붓검저 (떡이 부풀어 오른다)

1-② 물 붓검저 솔두께 흘라

(물이 넘쳐 흐른다. 솔두께 열어라)

2 짓저지다 [지겨지다]

그 아이 똥게 잡안 짓저점저 (그 아이 똥어를 잡아서 기뻐하고 있다)

3-① 덧그다 [더끄다]

문 잘 덧그라(문 잘 달아라)

3-② 이불 잘 덧그라(이불 잘 덜어라)

3-③ 이불 잘 더프라(이불 잘 덜어라)

3-④ *문 잘 덜으라(*문 잘 덜어라)

들인데 1의 ‘붓그-’는 형태적으로는 같으나, 의미로 변별되어 ①은 ‘부풀어 오른다’에 가깝고, ②는 ‘물이 넘쳐 흐른다’에 가깝다. 여기에서는 ①의 뜻을 지닌 것을 문헌어나 표준어와 대비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표준어에서는 ‘부풀다’가 있는데, 문헌어에서는 ‘브플- / 부플-’만 나타나고 ‘붓ㄱ-’의 형태는 나타나지 않지만, 어느 시기엔가 ‘붓ㄱ-’이 쓰이다가 ‘브플- / 부플-’로 넘어갔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형태가 비슷한 ‘붓-(腫)’이 나타나지만, 방

언에서도 ‘붓-’이 있어서 ‘기’이 규칙적으로 활용되는 ‘부어 오르다’의 뜻이 되는 ‘붓그-’와는 다른 말이다.

그런데, 문헌어에 ‘붓그-’의 형태가 있었다고 여기는 것은 문헌어에 ‘붓그럽다’가 있기에 형태와 뜻을 유추해본 결과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방언의 형태는 ‘붓그-’의 형태가 문헌어 ‘부플/부플-’과 대응이 되어 방언 형태가 되었던지, 아니면 개신파의 영향을 덜 받아 오래된 형태를 지니고 있는지는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붓그럽다’가 있는 점으로 보아 후자 쪽이 더 합리적일 것 같은 생각이 된다.

역시 방언의 대표형태는 {부끄-}로 보아야 하겠고, 표준어나 문헌어 ㅂ- / 표-와 대응이 되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2의 ‘짓거지다’는 표준어에서 ‘기뻐하다’에 해당되는 말인데, 문헌어에서의 쓰임은 ‘耶輪를 짓교리라’(千江曲)에 있다. 그런데, 방언의 ‘짓거지다’를 형태분석을 하여 보면 ‘짓그+어+지다’가 되겠는데, ‘짓그-’의 형태로만 쓰인 경우는 그 변이형태인 ‘짓번, 짓버서, 짓브고’ 따위가 고작이라, 문헌어에서나 표준어 활용과 제약의 면에서도 비슷하다. 그러나, ‘짓그+어+지다’에서의 씨끝활용은 다른 풀이씨와 마찬가지로 규칙적인 편이다. 다만, 방언에서의 대표형태는 {지끄-}로 잡아 둘 수는 있다고 본다.

3의 ‘덧그다’와 ‘더프다’는 표준어 ‘덜어 썬우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같은 뜻으로 쓰이나 ‘문을 닫다’의 뜻으로는 방언에서는 ‘덧그-’만이 쓰여 뜻의 분화를 일으키는 말인데⁷⁾ 방언에서는 두루 섞여 쓰일 때가 있다.

그런데 방언의 ‘덧그-’와 ‘더프-’는 간단히 변이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면 되겠지만, 그 쓰임에 있어서는 ‘덧그-’가 훨씬 넓게 쓰이고 ‘더프-’가 쓰이는 자리에도 ‘덧그-’가 쓰이더라도 어색함이 없다. 그러나, ‘더프-’는 뜻이 같은 때도 있고 변별이 될 때도 있어서 방언에서의 대표형태는 {더그-}와 {더프-}가 따로 설정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더끄-}의 형태는 어느 오랜 시기에는 ‘달- 덜-’의 뜻으로 쓰였을지 모른다. 그러다가 ‘덜-’의 형태, 뜻에서 분화되어 나가고 점점 ‘달-’과 ‘덜-’으로 분화되어 가고 있다.

방언에서는 앞에서 보인 바와 같이 문헌어나 표준어와 ㅂㅍㅈ / ㅍㅈㅂ의 관계가

7) 李崇寧: 〈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研究〉, 『國語學論文選 6』, 1977, p. 146.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다. ‘더품(거품)’이 ‘버꿈, 개꿈’으로 ‘눈부뻐(눈덜개)’가 ‘눈두개’, ‘어둡다’가 ‘어둑다’, ‘짚’이 ‘쩍’ 따위로 되어서 방언 ‘-ㄱ-’이 문헌어나 표준어 -ㅂ- / -ㅍ-과 대응이 됨을 알 수 있다.⁸⁾

그런데, 방언에서 ‘깃저지다’는 ‘耶輪를 깃교리라’가 나타나는데 방언에서 처럼 ‘깃저지다’는 나타나지 않고 ‘깃저하다’가 나타나고 뜻으로는 ‘기뻐하다’가 된다.

문헌어나 방언의 형태를 분석해 보면 *깃ㄱ+어+지-와 깃ㄱ+어+하-가 되어 서로 다른 형태의 접사만 붙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깃ㄱ’와 깃브의 대응은 역시 동일 시대의 현상이라기 보다는 *깃ㄱ-→깃브-’로 보아 방언의 ‘깃저지-’ 오랜 시기의 형태로 추정이 된다고 본다.

접사 ‘-지다’는 ‘ㄱ눌지다(陰두언)’, ‘술지다’ 따위가 있어 원래는 ‘-지다’가 독립된 풀이씨로 쓰이던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된다⁹⁾는 견해로 본다면 ‘깃ㄱ+어+지다’로 합성말이 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방언에서의 활용은 ‘깃저지-’에서는 규칙적인 편이나 ‘깃ㄱ-’에서는 ‘깃저원<기뻐서>’이 고작이다. ‘깃저원’의 뜻을 지닌 ‘깃번’이 있는데 이것의 분석은 바로 ‘깃ㄱ+어+ㄴ’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방언의 ‘깃저-’와 문헌어 ‘깃ㄱ-’는 앞엿 것을 입천장소리되기(구개음화)로 보아야 할까, 아니면 뒤엿것을 잘못돌이킴(부성회귀)으로 보아야 할까가 의문이 생기는데, 방언에서의 치(키), 깃(깃) 따위는 입천장소리 되기로 보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깃ㄱ-’도 ‘깃ㄱ-’를 잘못 돌이킴으로 보아 둔다.

앞에 올린 2와 3의 밑말(어원)도 ‘깃(羽)’와 ‘뎛(地髻)’의 관련을 유추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기뻐하는 것과’ ‘날개’, ‘내리 덮는 것’과 ‘뎛’이 의미상으로 관련이 있을 것 같고, 형태론의 입장에서 일치를 보이기 때문이다. ‘깃ㄱ-’에서 다른 씨끝(어미)가 오지 않을 때는 ‘-ㄱ-’이 떨어져 ‘깃’이 되고, ‘뎛ㄱ-’에서 ‘-ㄱ-’이 떨어져서, 앞에서 -갓ㄱ-에서 ‘갓(皮)’이 파생됨과 일치하기 때문에 ‘뎛ㄱ-’에서 ‘뎛’이 파생되었다고 본다.

8) 玄平孝; 앞책 p.245에 눅다 [nuk-], 어둡다 [ətup] / ətup- ~ ətuk- /, 짚 [ccip] / ccip-ccik / 따위를 들고 있다.

9) 허웅; 「우리옛말본 -형태론-」 샘문화사. 1979. p.206.

3. -ㅅㅑ-의 형태

-ㅅㅑ-의 형태가 문헌어에서는 ‘밭ㅑ, 밧ㅑ 발ㅑ’으로, 표준어에서는 ‘빨ㅑ’, 방언에서는 ‘밭그다’로 나타난다.

1. 밧그다 [바끄다]

입에 문 거 밧그라(입에 문 것을 빨어라)

방언에서는 ‘밭그-’에 씨끝 활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문헌어에서는 ‘바툰 추미 구슬 든 요물(睡成珠)〈杜초〉, ‘츄 밧다(吐沫)〈同文類解〉, ‘배앗홀 토(吐)〈新學典〉가 나타난다.

이것도 ‘바끄다’와 ‘빨ㅑ’가 몇가지 점에서 살펴 보면 대응이 됨을 알 수 있다. 본도의 방언에는 ‘바끄다’가 쓰이는데 문헌어에서는 ‘밭ㅑ-’의 형태는 나타나지 않고 ‘밧다’ ‘발다’의 형태가 보인다. 그러나, 재구를 시도해 본다면 *밧그다(명사형은 밧 또는 밧ㅑ임) 또는 *밧ㅎ다 > *밧그다 > *밧ㅎ다 > 밧ㅎ다 > 밧- / 발다’로 변천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앞에서도 이미 말한 바지만 신라시대로 올라가서는 ‘ㅑ’과 ‘ㅎ’은 같은 성문 마찰음이고, 또 훈민정음 자음체계가 ‘ㅑ’과 ‘ㅎ’을 갈라 놓은 것이 음운체제상 잘못된 것¹⁰⁾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이 인정된다면 ‘ㅑ’과 ‘ㅎ’은 변이형태(Allomorph)나 ‘ㅑㅎ’으로 볼 수 있어서 앞의 변천과정이 무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현대 표준어의 형성을 보면 *밧ㅎ다 > 밧ㅎ다 > 밧다’가 되겠는데 ‘ㅑ-’이 내파음 ‘t’가 되어 폐쇄연접인 관계로 *바트다’가 되었는지 ‘발다’가 되고, 혀 앞소리되기(Umlaut)가 되어 ‘빨ㅑ’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방언에서는 ‘바끄다’와 ‘바트다’가 함께 쓰이고 있으나 앞에서의 ‘더끄다’와 ‘더뜨다’에서와 같이 개실파의 영향을 입은 것으로 생각이 된다.

역시 ‘빨ㅑ-’의 밑말(어원)도 ‘밭ㅑ-’ 또는 ‘밧(外)’에서 파생되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10) 朴恩用; 앞의 논문, p.44~63.

4. 싯그다/실으다~실다(載)

방언에서는 같은 뜻으로 분포가 비슷한 ‘싯그다’와 ‘실으다’가 변이형태로 쓰이고 있는데, 표준어나 문헌어 ‘실다’와 관련이 있음을 찾아 보고자 한다.

1. 싯그다[시끄다]/실으다.
 집 싯경/실령 가라(집 실어서 가라)
2. ㄹ뫼그다 [ㄹ뫼끄다]
 허리 ㄹ뫼갓셔(허리를 빼었다)

들인데, 문헌어에서는 ‘실다(載)’로 나타나고 ‘ㄹ뫼다’는 ‘허리 ㄹ뫼다(閃腰)’〈譯補〉로만 나타나나 ‘고어사전’ 등에는¹¹⁾ 뜻풀이도 없고, 현대어 사전에도 올라 있지 않은 말인데 방언에서는 시골 활용도 규칙적으로 되는 말이다. 방언의 ‘ㄹ뫼그다’에 대한 설명을 보면,

‘Kemukkwa: 최목관절이 무엇과 마주쳐 제 정도에 지나치게 접해서 뻐지
경에 이르다.’¹²⁾

로 올라 있는데, 문헌어나 표준어에서는 앞에서 보다 더 찾아 볼 수 없고, 경상도 방언에서 ‘가물타다’가 같은 뜻으로 쓰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문헌어 ‘ㄹ뫼다’는 이미 쓰이지 않은 말로 여겨지고, 형태어에서는 ‘빼다’로 쓰이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말은 ‘-스ㄱ-’의 형태가 둘째 음절과 셋째 음절에서 이루어지는 점이 또한 다른 점이다. 그러나, 이 말에 대해서 형태 분석을 해 보면, ‘꺾+웃그-’(꺾:경계, 사이, 틈, 웃그-: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표준어에 ‘으깨다’가 있는데 그의 뜻과 대응이 되는 것으로 보아진다)가 되리라고 보며, ‘꺾’과 ‘웃그-’의 합성어라고 여겨진다.

11) 劉昌惇:「李朝語辭典」1974 p.5에는 ‘ㄹ뫼다’가 올라 있으나 뜻풀이가 안 실렸다.

12) 玄平孝:「濟州島方言研究-資料篇-」大學社, 1985, p.111.

그리고, ‘ㅅ그-’와 ‘ㅅ-’의 연관을 살펴보면, 그리 쉽게는 설명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줄기에 쓰인 ‘-스-’에서 닿소리과잉으로 ‘-ㄱ-’이 탈락하고, 또 받침 ‘-스-’과 ‘-ㄷ-’이 같은 음가를 지녔거나, 또는 같은 뿌리(어근)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훈민정음 8종성 제한에서 목소리가 받침으로 쓰이지 않게 되자, 원래 목소리 받침이던 ‘ㅎ-ㅁ-ㅇ’을 표기하는데 때로는 /ㄷ/으로, 때로는 /ㅅ/으로 하였고, 또 /ㅅ/과 /ㄷ/은 쉼(休止) 앞에서 다 같이 폐쇄되었다고 보는 견해나, /ㅅ/과 /ㄷ/을 같이 쓰면서 하나로 통일시키지 못한 이유는 칠음지위(七音之緯)에 충실했기 때문이라는 견해¹³⁾를 따르거나, ‘-스- -ㄷ-’은 훈민정음 제정당시는 다르게 쓰이다가 16세기 중반에 합류했다¹⁴⁾는 견해를 보거나 /ㅅ/, /ㄷ/은 변이음이라는 견해¹⁵⁾를 보면 앞에 올린 ‘ㅅ그-’와 ‘ㅅ-’은 관련이 있다.

‘ㅅ그-’의 재구는 ‘*ㅅ그- > *ㅅ흐/ㅅㅎ’를 추정해 보거나, ‘ㅅ그-’에서 ‘ㅅ그-’ 다시 ‘ㅅ-/ㅅ-’이 되어 ‘-ㄱ-’ 탈락으로 볼 수 있고 ‘ㅅ-’에서 흐름소리되기(유음화)가 일어나 ‘ㅅ-’이 되었다고 보며, ‘ㅅ그-’의 형태가 더 오래된 형태로 보이며 ‘ㅅ-’은 개신과의 영향으로 일어난 현상이라 본다.

2의 ‘ㄱ못그다’도 경상도 방언 ‘가물타다’와 같은 현상으로 보이며, 방언의 대표형태는 {시끄-}로 볼 수 있다.

5. -스- ∞ -스-

방언의 -스-이 문헌어나 표준어의 -스- 받침과 대응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 방언에서도 ‘주끄다/지꾸다/주치다’가 표준어 ‘짓다(ㅈ)에 대응이 되는 말로 ‘방언 사전’에 올라 있다.

1. 주끄다 [주끄다/주치다]

개 좃점저 (개가 좃고 있다)

13) 池春洙; <終聲八字制限에 있어서 「ㄷ·ㅅ」設定에 對한 考察>「국어국문학 5권 27집」, 1982, p. 737.

14) 허웅; 「국어음운학」 1985. 샘문화사. pp. 495~496.

15) 池春洙; 앞의논문

방언에서 실제 발음이 되는 것은 [주끄다/주치다]이나, 대표형태로 가상한 것이 [줏그다]로 보고, 변이형태로 ‘주끄다/지꾸다/주치다’를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주끄다]로 발음되는 것은 ‘즈-’의 ‘-’가 불안정을 막기 위하여, 뒤 혀소리되기(후설모음화)로 [주끄다]가 되었고, [지꾸다]는 앞혀소리되기(전설모음화)가 되어 [지끄다]가 되고 줄기의 끝소리 ‘-’의 떨어짐을 막기 위하여 강화시켜 -ㅓ-로 되고, 다시 수의적변동도 일어나 ‘-꾸-’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치다’에 대한 것은 다음 항에 비슷한 현상이 있으므로 뒤로 미룬다)

그런데 문헌에서는 ‘줏다’ (나라해 좃는 가히 하도다(昕所國多狗(杜諺))가 나타나고, ‘줏다’(즈즐 궤:땃(字會)나 ‘니 내여 즈조몬 讖이 갖라 癡나물 가줄 비시니<법화>’, ‘싸 화 붙들며니 내며 좃더니<법화>’에서와 같이 ‘줏-’과 ‘좃-’이 쓰여 있고 후대로 내려와서는 ‘지지다’(강강 지져 못오게 혼다<해동가요>)가 나타나고 있다.

방언에서의 대표형태의 설정은 {주끄다}가 되어야 하지만, 문헌어와 대비를 위해서는 가상적 대표형태 {줏그다}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헌어 ‘좃-’과 ‘-’의 관계는 강음화현상으로 되었고 재구형으로는 ‘*줏-’가 되겠다. 그리고, 현대 표준어 ‘짓다’로 변천해 왔다고 본다.

현행어에서 곧(곳, 경상도방언) : 고장 : 곳 : 處), 꿀 : (꽃, 경상도방언) : 꽃 : 꽃 (충청도방언)(花), 끝(端) : 가장자리 : 가생이(忠淸南道(邊)는 각각 同源語로서, 그 받침 ㄷ(ㅌ) : ㅅ(ㅆ) : ㅈ은 원래 같은 음에서 變異한 것이니, 이들 세 음의 調音點도 같은 ‘곳’이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¹⁶⁾

로 보더라도 -ㅈ-에서 -ㅅ-으로 서로 넘나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되었던 것 같다.

6. -ㅈ- ∞ -ㅅ-

방언에서 ‘-ㅈ-’이 문헌어나 표준어 ‘-ㅅ-’과 대응으로 보이는 것들

16) 李炳統; <古代國語 ㅌ의 破擦音化에 對하여>「국어학14집」, 1985, p. 40.

이 있다.

1. 시끄�다 [시끄�다]

시거 낱 바농질 하라(시침질하고서 바느질하라)

2. 붓그다[부끄다]／뫓그다[푸끄다]

문체 부경／푸경 땀 들이라(부체를 부치어 땀을 가시게 하라)

이 말들은 문헌어에서는 ‘숫다’〈역어유해〉와 ‘브츠다／부치다’〈능엄. 두시〉가 쓰였는데 뜻은 ‘시침질하다’와 ‘부체로 부치다’이다. 그런데 방언에서는 앞에 나왔던 말들과 같이 [시끄-], [부끄-／푸끄-]로 되고 있어, 문헌어나 표준어 ‘시침-, 부침-’가 같은 뿌리(어근)의 형태로 여겨진다.

문헌어에서는 ‘숫-’, ‘붓-’의 형태는 발견되지 않으나 재구는 가능하다고 보며, ‘스츠-’, ‘브치-부치-’, 〈박통〉의 형태만이 발견된다.

‘스츠-’, ‘브치-’에서 먼저 재구형을 시도해 보면, ‘*숫호-, *붓호-’를 세울 수 있고 첫음절의 -스-이 같은 잇소리(치음)인 -즈-로 강화되었거나, 입천장소리(구개음화)가 되어 ‘숫호- 붓호-’가 되고, 소리가 이어져서 ‘스츠-, 브츠-’가 되었고, 앞엿것은 앞혓소리(전설모음)되기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브치-’는 앞혓소리되기가 이루어진 상태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나왔던 ‘ㄱ’과 ‘ㅎ’이 옛시대에서는 같은 음이었거나, ㄱ>ㅎ, 또는 ㅎ>ㄱ이었다는 견해를 따르면 방언의 [시끄-, 부끄-／푸끄-]는 문헌어와 표준어에 서로 대응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시끄-부끄-푸끄-]의 형태가 더 오래된 형태로 추정된다. 방언에서는 표준어나 문헌어에 ㅈㄴ으로 대응이 되는 점도 방증이 될 것이다. 문헌어 ‘갓갑-, ㅈ갑-’이 방언에서는 ‘느참-, ¹⁷⁾가참-’으로 대응이 되는 점도 방증은 된다. 그리고 ‘프끄-’는 방언에서의 거센소리되기 현상에 지나지 않으며 대표형태는 시끄다, 부끄다가 되겠다. 앞의 5에서의 ‘주치다’도 위와 같이 설명이 되는 것이다.

17) 玄平孝; 앞책 p.243에서 낫다 [nɛcap-]／nɛcap~nɛchap-／으로 보고 있다.

7. -스ㄱ-으-끝-

방언에서 -스ㄱ-이 -끝-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문헌어에서는 ‘잇그-’와 ‘잇플-’이 나타나고, 표준어에서는 ‘이끝-’로 되어 있다.

1. 잇그다[이끄다]

최 이경 가라(소를 이끌어서 가라)

인데 ‘잇그-’에서 ‘이끄-’, 다시 수의적변동 또는 변자음화가 되어 ‘이끄-’가 되고 다시 ‘-ㄱ-’이 덧나서 ‘이끝-’이 되었다고 보아진다. 방언의 대표 형태는 |이끄다|가 되겠고, 문헌어와 일치하는 형태가 된다.

그리고 표준어 ‘이끝다’와 대응이 되는 형태다.

그러나, 문헌어에서 ‘잇플-’을 형태분석을 했을 때 ‘잇+긔-’이 합성되었고 -긔-의 ‘-스-’이 내파음 ‘ㄷ’이 되어 다시 유음화되어 ‘-ㄱ-’이 되었다고 보아진다. 그것은 표준어 ‘끝다’의 뜻으로 ‘긔다’가 문헌어에 있으므로 그렇게 보게 된다. 방언에서도 마찬가지로 ‘끝다’의 뜻으로 ‘긔다’가 있어서 ‘잇그다’는 ‘잇+긔-’이 합성되어 ‘이끄다’가 되고 있다. 다만 이 말에 -스ㄱ-이 앞에 들어 보였던 -스ㄱ-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지는 의문이나 일단 방언 형으로서 -스ㄱ-이 일치하므로 여기에서 다루어 둔 것이다.

Ⅲ. 결 론

제주도 방언에서는 소위 고름소리라고 하는 모음 줄기(어간)의 끝소리로 가지고 있어서 자연스러운 씨끝의 활용을 규칙적으로 하는 특징이 있고, 그러므로 문헌어에서 대표형태 선정의 다름도 생기지 않고, 또 표준어에서 받침-ㄱ- 같은 것이 닿소리 씨끝(어미)이 오더라도 고름소리를 취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규칙적인 활용을 하며 씨끝 활용에 의한 형태의 변동도 일어나지 않게 안전한 형태를 지니게 하는 짜임이 있다.

방언의 ‘낫그다[나끄다]’ 따위의 형태가 바로 그것인데 이제까지 살펴 본 것

을 요약하면,

방언의 ‘낫그-’의 형태가 문헌어나 표준어의 표기에 어느 정도의 규칙을 적용을 하면 같은 형태임이 드러나는 점으로 보아, ‘낫그-’의 형태가 방언자체에서 이루어진 방언형으로만 보기는 어렵고, 문헌어나 그 이전 시대의 언어 현상을 지역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며, 이미 밝혀진 제주도 방언에서는 그 기층을 달리한 15,6세기의 어형인 2음절어간어와 현대어인 단음절 어간어, 이 두 어형이 오늘날 함께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¹⁸⁾고 하는 견해나, 본도 방언에 있어서 어간말 모음이 아직 탈락되지 않은 언어의 저층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 어형은 선초(鮮初) 문헌어형 /곁-/보다 더 그 이전 시대로 소급하여 올라 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¹⁹⁾된다고 보는 견해로 보더라도 방언이 문헌어나, 표준어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임을 입증하는 셈이다.

위에서 몇가지 점에서 충분하지 못한 자료를 가지고서 대응관계를 살펴 보았는데, 재구나 변천의 과정, 규칙적용에 있어서 무리가 없었길 바라며, 문헌어의 풀이씨(용언)의 줄기(어간) ‘낫-, 낫-’ 따위는 방언을 통해서 볼 때 대표 형태는 -스-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고, 파생의 관계를 밝히는 데도 방언이 중요한 자리에 있음을 밝혀 보려 하였다.

18) 玄平孝; 앞책, <濟州島方言語詞의 層位的 考察>, p. 291.

19) 金洪植; 앞 논문, p. 37.

참고문헌

- 金洪植; 語幹末 母音脫落에 대하여, -특히 濟州島方言과 關聯해서-
「제주대학논문집 제8집」 1977.
- 沈汝澤; 濟州島地名研究, 「논문집 제4집, 제주대학」, 1972.
- 朴恩用; 曲用時에 나타나는 [-] [ㅎ]에 대하여 -계통론을 위한 접미사 비교-
梁柱東; 古歌研究
- 李炳統; 古代國語 ㄷ의 破擦音化에 對하여 「국어학 14집」, 1985.
- 李崇寧; 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 研究, 「國語學論文選6」, 1977.
- 池春洙; 終聲八字制限에 있어서 [ㄷ·ㅅ] 設定에 대한 考察, 「국어국문학 27」 1982.
- 허 용; 국어음운학 -우리말소리의 오늘·어제-, 샘문화사, 1985.
——; 우리옛말본 -형태론-, 샘문화사, 1979.
- 玄平孝; 濟州島方言研究(論攷篇), 文學社. 二友出版社. 1985.
——; 濟州島方言研究(資料篇), 太學社. 1985.